

삼엄한 보안 속 콘클라베 돌입…바티칸, 휴대전화 통신 차단

추기경 133명 전원 휴대폰 수거
인터넷·신문 등 외부접촉 금지
3분의 2 이상 득표까지 매일 투표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진행되는 자기 교황 선출 절차 콘클라베(conclave) 기간에 도시 국가인 바티칸 대부분 지역에서는 휴대전화 통신도 제한될 예정이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티칸 시국 정부는 콘클라베가 시작되는 7일 오후 3시부터 “바티칸 시국 영토 내에 있는 휴대전화의 통신 신호 송출 시스템이 비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된 휴대전화 신호는 자기 교황 선출이 발표된 이후에 다시 복구될 예정이다.

다만 수많은 가톨릭 신도들이 교황 선출 결과를 보기 위해 모이는 성베드로 광장 지역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휴대전화 통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바티칸 정부 대변인은 밝혔다.

지난 달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을 뽑는 콘클라베는 7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된다.

콘클라베 기간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

에서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는 교황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해야 한다.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밖에 두고 콘클라베에 들어가야 하며, 전화와 인터넷, 신문 열람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바티칸 경찰은 전자 보안장치를 동원해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자기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 전원이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고 교황청이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들은 7일부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3분의 2 이상, 즉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를 반복한다. 콘클라베 투표는 첫날 한 차례, 다음 날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씩 하루 네 번 진행된다.

이렇게 사흘 동안 투표에서도 교황이 뽑히지 않으면 추기경들은 하루 동안 투표를 중단하고 기도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투표권이 있는 만 80세 미만 추기경 선거인단 135명 중 케냐의 존 은주에 추기경과 스페인의 안토니오 카니자레스 로베라 추기경 등 2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을 국적별로 보면 69개국이다. 이는 역사상 최다라고 AP 통신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들.

연합뉴스

미국 의회, 엔비디아 AI칩 위치추적 추진

중국 밀수 차단…도착국 추적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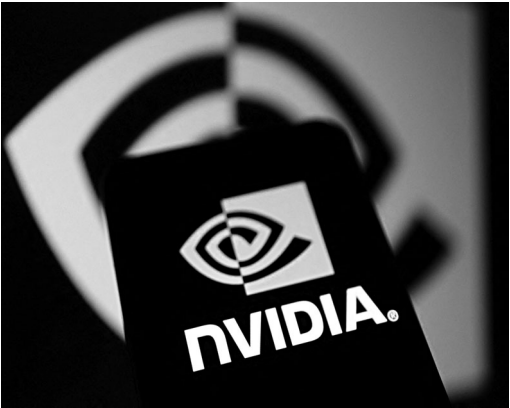
미국이 자국산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규제를 뚫고 중국에 밀수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빌 포스터 미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미국산 반도체가 판매 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포스터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상무부에 6개월 이내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 칩의 위치 추적 외에도 해당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작동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터 의원은 로이터에 미국산 반도체 밀수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 로고.

연합뉴스

그는 “이는 상상 속에서 벌어지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는 현재의 문제이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중국의 공산당이나 군대가 이 칩들을 이용해 무기를 설계하거나 AI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오히려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제재에 허점이 계속 지적돼왔다. 연합뉴스

이, 피격 하루 만에 예멘 보복 공습

후티 측 “민간시설 6차례 공격”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미사일로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타격한 지 하루 만인 5일(현지시간) 보복 공습을 단행했다.

후티 계열 알마시라TV는 이날 오후 8시께 후티가 장악한 예멘 서부 해안도시 호데이다의 항구가 6차례 공격당했다고 보도했다.

알마시라TV는 “시온주의자(이스라엘)와 미국은 호데이다항의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후티가 이란산 무기를 운송하는 데에 쓰이는 호데이다항구 시설과 인근 시멘트 공장을 전투기로 공습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후티가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시멘트로 땅굴을 파고 테러 시설을 짓는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후티가 지대지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이스라엘 영토와 민간인을 향해 발사하며 반복적으로 공격하는 데 대응한 것”이라며 이번 공습이 보복 차원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포탄 50발로 항구

와 무기 제조 시설을 파괴했다”며 “이번 공격은 마지막이 아니며 ‘자제의 시간’은 끝났다”고 경고했다고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미국 매체 약시오스는 미국 정부 고위 인사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조율하에, 예멘에서 공격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전날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후티가 쏜 미사일이 떨어져 6명이 다치자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곧장 “7배로 양값을 당할 것”이라고 보복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이 후티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후티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저항의 축’ 무장세력 일원이다.

후티는 2014년 내전을 일으켜 사나 등지를 장악한 뒤 2022년 유엔 중재로 휴전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공격했다.

올 1월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3월 중순부터 후티에 대한 공격에 나선 상태다. 연합뉴스

한국 어린이 인구 비율 10.6%…4천만 이상 국가 중 최저

내년 9.7% 등 갈수록 하향 추정
일 총무성 집계 4월 현재 11.1%

한국이 인구 4천만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연앙 인구 기준)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4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

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주요국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등 순이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2월 이 포털에 오른 주민등록통계 기준 유소년 인구는 542만8천명이다. 전체 인구 중

10.6% 수준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올해 4월 1일 현재 집계한 일본의 유소년 인구는 1,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면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 1950년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44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일본 인구 1억2,340만명에서 유소년 인구 비율은 11.1%로 역시 역대 최저였다.

과거 일본의 유소년 인구가 3,000만명 선을 바라보던 1950년에는 35.4%에 달했으나 저출산 여파에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5월 5일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날이다. 연합뉴스



에어포스원에서 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2주내 의약품 관세 발표…불공정하게 갈취 당해”

“약값 관련 다음주에 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으나, 내용은 받고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

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품(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또 △해의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연합뉴스